

# 전남도, 장성·강진에 시데이터센터 구축

장성 200MW·강진 300MW...5조5000억 규모  
AI 활용 모델 발굴·지역 인력 채용·교육 협력

전남도는 최근 장성군·강진군, 민간 참여 기관과 함께 ‘AI 데이터센터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했다.

협약에는 전남도, 장성군, 강진군을 비롯해 베네포스, 대우건설, KT, 탑솔라, KG엔지니어링, IPA, 유진투자증권, 시드인베스트먼트 자산운용 등이 참여해 AI 데이터센터 구축과 연관

산업 생태계 조성에 협력하기로 했다.

장성군에는 2조2000억원 규모 200MW, 강진군에는 3조3000억원 규모 300MW의 AI 데이터센터가 각각 조성될 예정이다.

AI 데이터센터는 구축 속도가 곧 경쟁력인 만큼 이번 협약 대상 사업은 부지확보 등 핵심 사전 준비가 상당 부분 갖춰진 상태에서 추진된다

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전남도는 이를 바탕으로 빠른 시일 내 준공·가동을 목표로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또 이번 협약은 데이터센터 구축뿐 아니라 지역 산업과 연계된 AI 활용 모델을 발굴하고 지역 인력 채용·교육에도 적극 협력하는 내용을 포함해 지역발전에도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AI 데이터센터 모델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특히 오는 7월 행정통합을 향해 나아가는 상황에서 광주의 우수한 AI 인재풀과 결합되면 인재·산업·에너지가 결합된 AI 생태계 구축이 가

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으로 전남도는 정부가 추진 중인 AI 컴퓨팅 인프라 확충과 분산형 데이터센터 구축 방향에 맞춰 전남의 산업 여건과 특성을 살린 AI 데이터센터 모델을 단계적으로 구현할 계획이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오는 7월 광주·전남 행정통합을 앞두고 있기에 이번 투자 결정은 광주·전남 사·도민 모두가 환영할 것이다”며 “이번 사업은 정부의 정책방향과 잘 부합하는 거점형 AI 인프라 육성의 선도 사례로, 장성·강진군과 함께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박정렬 기자 holbul@gwangnam.co.kr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대상 모집  
시, 28일까지 전월세 대출 청년 70명

광주시는 무주택 청년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청년맞춤형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대상자를 19일부터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

이 사업은 청년이 전·월세 임차보증금을 대출할 때 발생하는 이자를 일부 지원하는 사업이다.

광주시가 대상자를 선정하면 광주은행이 대출을 실행하고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대출을 100% 보증한다.

사업 대상자는 신규임차계약(예정)자 50명, 갱신임차계약자 20명으로 구분해 총 70명을 선정한다. 신규임차계약자는 19일부터 28일까지 모집하고, 갱신임차계약자는 5회(3월·5월·7월·9월·11월)에 걸쳐 회차별 4명씩 모집한다.

대출한도는 2억원 이하 전·월세임차보증금의 90% 이내(최대 1억원)이며 대출금리 2.5% 중 2%를 광주시가 지원한다.

대출기간은 기본 2년이며 1회에 한해 최대 2년 연장할 수 있다. 대출기간을 연장할 경우 청년은 4년간 최대 800만원의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청자격은 공고일 기준 광주시에 거주하며 대학(원)생·취업준비생은 부모 연소득 7000만원 이하, 직장인(사업자)은 본인 연소득 4500만원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인 19~39세 무주택 청년이다.

다만 주택소유자, 주거급여·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대주택·버팀목 전세자금대출·중소기업 취업청년전월세보증금 대출 등 정부(공공) 주거지원사업 참여자, 기존 청년 맞춤형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대상자 등은 제외된다.

접수는 광주청년통합플랫폼 누리집(https://youth.gwangju.go.kr/www/)에서 온라인으로 진행한다. 광주시는 다음달 20일 신규임차계약자 선정 결과를 공고하고 문자 메시지로 개별 안내할 계획이다.

참여 요건, 제출 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광주청년통합플랫폼 누리집에 게재된 사업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권운숙 광주시 청년정책과장은 “올해는 일일요건 충족 시 취업준비생도 본인 소득으로 신청할 수 있는 예외기준을 신설하고 소득 선정 기준을 새롭게 정비해 청년들의 정책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했다”며 “앞으로도 청년 눈높이에 맞춘 주거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보완·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승홍 기자 photo25@gwangnam.co.kr

단체관광객 유치 협력사 공모  
전남도, 국내외 여행사 35개사

전남도가 국내 관광 수요 회복과 방한 외국인 증가 흐름에 맞춰 단체관광객 유치에 나선다.

전남도는 국내외 단체관광객 전남 유치를 위한 협력여행사를 오는 30일까지 공개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공모를 통해 선정되는 협력여행사는 총 35개 사다.

이 가운데 10개 사는 전남지역 여행사를 반드시 포함해 선정한다. 수도권 등 대도시 마케팅 강화를 위해 모집 대상은 전국 여행사로 확대했다.

선정된 협력여행사는 전남 특화 관광상품을 개발·운영하며 국내외 단체관광객을 도내로 유치하는 역할을 맡는다. 전남도는 협력여행사의 상품 운영과 모집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 운영비와 각종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내국인 유치 협력여행사(15개사)에는 15인 이상 단체관광객 모집 시 차량 임차비 35만원과 유료 체험비·관광지 입장료를 1인당 최대 2만5000원까지 지원한다. 외국인 유치 협력여행사(20개사)에는 가이드비, 유료체험비, KTX 교통비, 모집 인센티브와 함께 최대 500만원 규모의 홍보·마케팅비를 지원한다.

올해는 테마형 관광상품 지원도 확대한다. 목포~보성선 철도 노선과 인근 관광지를 연계한 레일 관광을 비롯해 반려동물 동반 여행인 ‘펫 트레일’, 시니어층을 겨냥한 파크골프 패키지와 리마인드 웨딩여행 상품을 적극 육성한다.

이와 함께 크루즈 관광 활성화를 위한 임차지원금, 여수세계섬박람회 관광객 유치 특별 인센티브, ‘섬 반값여행’ 상품 등도 새롭게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

오미경 전남도 관광과장은 “협력여행사는 전남 관광의 매력을 상품으로 구현하고 관광객을 현장으로 이끄는 핵심 파트너”라며 “전남만의 차별화된 관광 콘텐츠와 실효성 있는 모집 전략을 갖춘 여행사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전남도는 지난 16일 순천 호남호국기념관에서 산림관계관 회의를 열고, 2026년 산림자원·산림휴양 분야 주요 시책과 사업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 전남 산림정책 한자리에...재난 대응부터 휴양까지 점검

산림관계관 회의서 2026년 정책 방향 공유·현장 애로 논의  
2억 그루 나무심기·임차 헬기 운영·재난대응단 신설 중점

전남도가 22개 시·군과 산림 유관기관이 한자리에 모여 올해 산림정책 방향과 현장 애로사항을 공유하며 사업 추진의 속도와 실행력을 점검했다.

전남도는 지난 16일 순천 호남호국기념관에서 산림관계관 회의를 열고, 2026년 산림자원·산림휴양 분야 주요 시책과 사업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고 18일 밝혔다.

회의에는 시·군 산림부서와 산림조합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들 비롯해 숲속의전남 협의회, 한국양묘협회, 한국산림탄소협회 등 관련 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조림과 숲가꾸기, 산불·산사태·병해충 등 산림재난 예방, 도시숲과 정원 조성, 산림휴양·차유 사업까지 전반적인 정책 방향이 공유됐다.

동시에 사업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현장 애로와 제도 개선 필요 사항에 대한 의견 교환도 이뤄졌다.

전남도의 올해 산림사업 예산은 총 4039억원으로, 사방사업 581억원을 비롯해 숲가꾸기 434억원, 산림재난대응단 운영 302억원, 조림 267억원, 산불방지 150억원, 산림병해충 방제 130억원 등이

편성됐다.

이와 함께 기후대응 도시숲 188억원, 지방정원 조성 164억원, 도시숲 조성 159억원, 임도 간선 156억원, 자연휴양림 조성 101억원 등 생활·휴양 밀착형 사업도 병행 추진된다.

전남도는 중점 과제로 ‘2억 그루 나무심기’ 10개년 계획을 본격화하고, 임차헬기 10대 운영과 산림재난대응단 1082명 신설을 통해 초고속·대형 산불 대응체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을 4월까지 전량 제거하고 수종 전환을 확대하며, 우기 이전 사방시설을 집중 설치해 산사태 위험을 낮출 계획이다.

정원·관광 분야에서는 여수세계섬박람회와 연계한 ‘남도 K-가든’ 확산과 정원관광 프로그램 확대가 추진된다. 산림휴양 분야에서는 국립완도난

## 전남 축산농가 경영안정·환경개선에 2472억 투입

도, 스마트축산 등 5대 전략 107개 사업 추진

전남도가 올해 축산농가의 경영 안정을 뒷받침하고 축산환경 개선을 가속화하기 위해 대규모 재정을 투입한다. 환경 개선과 스마트축산 전환, 동물복지까지 포괄하는 종합 대책이다.

전남도는 올해 총 2472억원을 들여 5대 전략 아래 107개 축산 분야 사업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축산농가의 소득 안정과 지속 가능한 축산 기반을 동시에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전남도는 우선 환경친화 축산기반 구축과 스마트 축산농장 육성에 힘을 쓴다.

축산시설 현대화에 191억원, 녹색축산 육성자금 200억원, 축산분야 ICT 융복합 지원 44억원, 스마트 축산단지 조성 10억원 등 14개 사업에 528억원을 투입해 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추진한다.

가축분뇨의 적정 처리와 쾌적한 축산환경 조성도 중점 과제다.

가축분뇨 개별처리시설 확충 116억원, 퇴비 부속 축진 26억원, 악취 저감 시설·장비 지원 16억원, 악취 저감용 미생물 공급 75억원, 퇴·액비 자

원화 67억원, 가축분뇨 에너지화 시설 구축 65억원 등 15개 사업에 421억원을 배정했다. 축산 악취로 인한 주민 불편을 줄이고 지역사회와의 상생기반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축산물 품질 고급화와 판로 확대에도 대규모 예산이 투입된다.

조식료 생산기반 확충에 950억원을 투입하는 것을 비롯해 한우 송아지 브랜드 육성 30억원, 학교 우유급식 107억원, 유가·무항생제 축산물 인증 32억원, 가축시장 현대화 18억원, 축산물 가공·유통 시설 확충 28억원, 축산물 이력관리 강화 19억원 등 49개 사업에 총 1312억원을 지원한다.

생산비 절감과 유통 활성화를 동시에 겨냥한 조치다.

축산농가 경영 안정을 위한 안전망도 강화한다.



가축재해보험 가입비 지원에 100억원을 투입하고, 고온 스트레스 완화 17억원, 폭염 피해 예방시설 지원 13억원, 사료구매자금 대출 이자 지원 12억원, 한우농가 삶의 질 향상 지원 10억원 등 16개 사업에 114억원을 편성했다.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 위험과 경영 불안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이와 함께 성숙한 동물보호 문화조성과 반려동물 인프라 확충에도 나선다.

동물보호센터 설치·운영 15억원, 길고양이와 실의 사육견 중성화 수술 지원 22억원, 개 사육농장 전·폐업 지원 29억원,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 20억원 등 13개 사업에 97억원을 투입해 동물복지 실현을 도모한다.

김성진 전남도 축산정책과장은 “축산농가의 경영 안정과 지속 가능한 축산 발전을 위해 올해 계획한 시책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다”며 “현장의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